

다산포럼

민병욱



옛 친구들을 만났다. 1970년대 중후반에 사건기자, 이른바 '사츠마와리'(경찰서를 순회 취재하는 기자를 칭하는 일본말 잔재, 요즘도 그렇게 부른다)를 함께 한 신문 방송 동지생들이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30년 만에 다시 본 친구도 있었다.

말이 친구고 동지지 사실 우리들은 처절한 경쟁자였다. 기사 한 줄에 울고 웃으며 물먹고 물 먹인 사이, 특종이라던 영혼도 넘길 것처럼 눈에 핏발을 세우고 현장을 뛰어다녔다. 기사로의 상하고 술로 풀고, 그러다 또 기사로 정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였다.

옛 이야기가 넘쳤다.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쟁이'들이 만났으니 화제가 오죽했겠는가. 33년 전쯤의 사회상이 훤히 그려졌다. 먼저, 가난이 빛은 사건 얘기. 일가 즉 7명이 한방에서 자다 연탄가스에 질식사해 숨진 현장에서 친구는 울고 또 울며 신문에 쓸 얼굴사진을 찾았노라고 술화했다. 정이 많은 그는 달동네 할머니들의 겨울재미 취재를 갔다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주고 온 적도 있었다.

다른 친구는 쓰레기통에서 복어 알을 주워 끓여먹고 죽은 사람 기사만 10천 이상이나 썼다고 했다. 못 먹고 회가 끓어 배가 납산만한 어린이를 보고 취재는 뒷전

33년 만에 만난 사건기자들

인 채 업고 병원으로 내달린 얘기. 등록금을 못내 집단체벌을 받은 아이들 취재를 하다 화가 치밀어 선생님을 치고 옥박질렀던 무용담도 나왔다.

취재환경도 열악했다. 지방 현장에 가면 전화부터 잡아야 했다. 당시의 취재내용을 전화로 부르고 내근기자가 받아쓰던 시스템. 전화는 한두 대데 언론사는 10곳이 넘으니 전화확보 싸움이 육박전을 방불했다. 다른 기자가 독점 송고하는 꼴을 못 보 전화를 뺏아버린 기자도 있었다. '휴대폰, PC로 (편하게) 송고하는 요즘

기자들이 그런 일을 알라나' 누군가 혼자 말을 했다.

편집국 책상 위에서 자다 쥐에 물린 일. 통금시간 형사 숙직실에 눈 불어려 갔다 고 쫓겨고문 현장을 목격한 얘기. 버스비가 없어 서너 군데 경찰서를 걸어 툄다 특종을 낚은 얘기. 새벽마다 병원 시체실로 출근하느라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했던 일화들이 끝도 없이 쏟아졌다.

우리들이 사건기자를 할 당시는 긴급조치가 잇달아 발동된 시대였다. 알아도 못 쓰는(?) 기사, 써도 안 나가는 기사가 부

수룩 미담이 그림자였다. 데스크는 입이 닳도록 "제발 밝은 기사 좀 써라"고 주문했다. 막상 그런 걸 써내면 "이것도 기사냐?"고 내던지면서..

한창 얘기 흥이 올랐을 때 한 친구가 뜬금없이 말했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지?" 느닷없는 이 질문에 우리 일제히 입을 닫았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지, 하는 표정들이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선 여러 생각이 팽도는 듯했다. 행복이라고? 그때와 지금이 비교가 되는 건가? 아니 지금이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잖아? 마음대로 쓰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떨고? 취재환경이야 당시에 비하면 천국이나 마찬가지이지? 그런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걸 갠 건 한 친구의 재치였다. "우리 경쟁자지만 그래도 적(敵)은 아니었잖아, 동지였지." 아, 그래, 동지! 창경원 동물원 새끼를 낳거나 버스가 개문 발차해 사고를 낸 바위 기사로 물을 먹이긴 했지만 언론에 대한 뜻이 같았던 동료들. 생각은 달라도 서로 감싸 안고 아픔을 함께 위로했던 친구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꽤 행복감을 안고 그날 모임을 마쳤다. <간행물윤리위원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나주혁신도시 '작통 명품도시' 만들 건가

나주에 조성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혁신도시)가 '작통 명품도시'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공공기관들을 독려하기 위해 애초 추진기로 한 유시티(U-city), 녹지지역, 문화시설 등을 부지 조성원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 아래 녹지지역 등으로 책정된 부지를 축소시켜 유상공급면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혁신도시의 핵심인 '그린 도시'와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재조정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방이전에 미온적인 공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조성원가가 비싸다며 부지매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들은 조성원가를 낮추기 전에는 부지 매입이 어

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혁신도시의 공간을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조성원가가 높으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공장들의 유치도 어렵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수익구조도 악화되는 등 이전작업이 순탄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혁신도시의 경쟁력인 유시티, 녹지지역, 문화시설을 축소한다는 것은 '무늬만 그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진심으로 독려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기본시설과 조성비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행여라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의 틀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혁신 도시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 때문에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 있다. 조성원가 인하를 빌미로 혁신도시의 틀을 흔드는 것은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사상 최대 '슈퍼 추경' 실효 거두려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편성기로 했다.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빠르면 5월부터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쓰임새를 보면 민생과 일자리에 방점을 찍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7조~8조원을 민생과 일자리에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2조5천억~3조원이 들어간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세계경기의 급속한 침체 여파로 기업과 가계의 투자여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재정 역할은 때마침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현실화되고 있는 실업대란을 막고,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를 살리기 위해서도 시급히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립공원내 시설들과 교류 전계통과 전기설비의 교체하

여기에,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최근 일련의 복지도 조금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돈이 일부 못된 공무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사고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이래선 이번 슈퍼 추경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추경의 낭비와 비효율도 문제다. 10여 년 동안 각각 2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는 없는 농어촌구조개편사업과 교육개혁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추경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예산 집행과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재정부담만 키우고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감안해 당리당락에 휘둘러 추경처리 시기를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은 경제부터 우선 살리고 볼 일이다.

NGO 칼럼

허소영



우리 동양사람들은 꽃과 나무를 즐겨 왔다. 많은 나물과 꽃과 나무.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봄으로는 썩, 달래, 냉이, 취나물, 씩 부쟁이, 고사리 등의 나물류와 매화, 개나리, 목련, 벚꽃, 아카시아 등의 흐드러진 꽃들과 떡갈나무, 잣나무, 오희나무 등등의 활엽수들이 있다.

수만 가지 나물, 꽃, 나무가 있고, 각자 이름을 지니고 있다. 쇠뜨기꽃, 조개나물꽃, 산장 가는 꽃, 아그배나무꽃, 청미래덩굴꽃, 그 셀 수 없는 꽃들. 그 중엔 향기로운 꽃차로 마시기도 한다. 꽃이나 나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슴 안에 파

봄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삶에 희망을 주면서 수목들과 함께 가슴 설레며 감격스런 시작을 한다.

여름은 젊은이들 열정처럼 뜨거움이 이글거리는 계절이다. 식물들은 태양의 열을 받아 활발하게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매진하는 시간이다.

가을에는 수목들이 초록의 옷을 벗고 낮에는 갈색, 주황, 노란색으로 물결치고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할 때쯤은 가을의 빛깔은 봄이나 여름보다 더 화려하여 아름다운 극치라 할 수 있다. 살결의 소금기가 사라지고 살랑거리는 가

기고

황정걸



최근 남해안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색깔의 열대성 어류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바닷물 온도상승으로 동해안에서는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대구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반면 서해안에서는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멸치 등의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흑산도와 홍도에서는 그간 발견된 적 없는 미기록종의 철새가 날아오고 있으며, 한 겨울에도 꽃이 봉오리를 틔운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를 천

우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역시 국토환경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국립공원이 간직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속에 가족이 함께 섬 지역에 머무르면서 수종생태탐사, 갯벌체험, 지역문화체험 등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우리 고장의 인심을 소개하는 해양생태관 광프로그램을 5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공원내 주민들을 위하여 올해는 태양광 에너지 사용하는 주민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립공원내 시설들과 교류 전계통과 전기설비의 교체하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작은 실천

명하면서 녹색성장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맞춰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 전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이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04년에 발효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립공원의 경우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발생억제를 생활화 하고 있는데, 특히산책이 관통하는 몬타나주에 위치한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경우, 그 국립공원의 상징인 빙하가 기후변화로 인해 녹아 사라지는 현상을 70여년째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쉽지 않은 기후변화 사실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서다.

고, 신규설치 건물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진전적으로 기후친화적 국립공원으로 변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사무실의 점심시간 실내 소등, 컴퓨터 전원차단, 적정 난방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을 권장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불필요한 전기코드 하나 뽑는 것에서부터, 차량 공회전 자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재생용품 사용,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확대, 고효율 에너지 제품 구매 등등이 있다.

우리 공단의 슬로건은 '자연,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후손들에게 누더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이다.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 이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이제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소장>

새봄에는 나물과 꽃과 나무에 사랑을

스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즈음 공원이나 산, 식물원에 가보면 식물에 이름표가 붙어 있다. 보고 스쳐 지나지 않고 자세히 보고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 보도록 하자. 아파트 숲인 도시 속에서 자연을 접하려면 도시를 벗어나야 한다.

광산구에 있는 어느 꽃 농원을 찾아 갔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어서인지 꽃 농원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꽃들은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눈에 익은 할미꽃, 제라늄, 선인장, 튜립, 재스민, 시크리엔, 산세베리아 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화초들이 서로 자기 자태를 뽐내 자신이 쫓겨 늘어서 있는 듯했다.

꽃과 함께하는 시간! 그 안에서는 잡다한 생각은 모조리 사라지고 행복만 가슴에 가득 담겨 있다.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있는 듯했다.

을 바람은 뜨거운 열정을 냉각시키고 낙엽을 밟는 소리 들으며 꿈이 여무는 계절이다.

겨울에 낙엽진 나뭇가지는 차가운 칼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린다. 별거벗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겨울은 우리에게 인고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그렇다고 겨울이 춥고 어두운 것만 아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에 대한 소중함도 알 수 있다. 쓸쓸하고 외롭고 차가운 겨울에 우리는 참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새봄이다. 누구나 한 번씩 찬란한 꿈을 가슴 벅차도록 안아 볼 때이다. 요즈음 가장 인기 있는 나무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백일홍, 왕벚나무 등이 있는데 한적한 시골집 땅에 나무와 화초를 가꾸며 늘어나는 생으로서 한 번 날의 꿈을 그려볼듯 좋을 것이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 광주시협회 회장>

식당들 '나홀로 손님' 배려 식단개발 필요

혼자 식당에 가면 한가한 시간 때가 아닌 때에는 찬밥신세로 푸대접받기 일쑤다. 그 이유는 한참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과 술 손님이 들이닥치는 오후 6시 이후에 혼자 밥 먹으러 들어가서 기본 4인용 식탁을 혼자 차지하게 되니 음식점 주인들이 눈곱으로 싫어한다. 이 때문에 단체 손님이 오면 식사장에 다른 자리로 가서 합석하라는 종용을 받을 때도 있다. 만약 1~2인용 식탁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반찬의 기본식단도 손님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인용 반찬을 따로 만들어 준비하면, 국가적으로

는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먹다가 남은 반찬은 어느 손님에게 재탕으로 내갈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문제는 적잖은 메뉴를 2인 이상일 때만 판다는 점이다. 즉 아예 1인분은 팔지도 않아서 제법 맛있다고 소문난 집은 값도 만만치 않음에도 2인분 이상만 판다고 고집한다. 결국, 이런 식당의 이런 메뉴는 혼자 2인분을 시킬 수 없으니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혼자 식당을 찾는 싱글족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식당들이 좀 배려하며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권희숙·광주시 남구 입춘동>

대부업 중개업자 수수료 폭리 조심해야

어머니 병원비를 급히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론 컨설턴트라는 대출중개업자 쪽과 연결돼 대출을 권유받았다. 당장 병원비로 200만 원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겠다고 말했더니 그쪽에서는 대출금의 15%를 취급수수료를 달라고 말했다. 나는 대부업체 직원이 영업하는 걸로 알고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중개업자이고 그 중개수수료를 달라는 말에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이런 대부업 중개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다 고 들었다. 사실 시민들은 당장 급한 병원비나 등록금 혹은 아파트 중도금 같은 걸 해결

하기 위해 이 대부업체 돈을 이용하지만 여기에는 큰 덫이 있다. 대부업 중개업자들은 론 컨설턴트, 여신팅장, 대출 딜러 등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부업체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로 받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신용등급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꼬셔서 아예 10~15% 가량을 성공 보수로 요구한다.

중개업자들이 대출 고객한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웬만하면 이런 중개업자들에게 이용하지 말자. <▲이재령·광주시 북구 생용동>

無等鼓

당신이 집어든 종남미산 바나나 한 개에는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지 알고 있는가? 또 유럽산 햄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먹을거리, 특히 수입 식품이 동반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주장도 효용을 얻고 있다. 이른바 '푸드 마일리지'를 많이

한 원인으로 대두했다. 즉 수입 농수산물을 운송하는 수단인 비행기나 선박을 운행하는 데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기후상 한계, 그리고 무역개방의 영향으로 농수산물에 해외에 의존하는 식량수입국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



도 2000년 기준으로 총량은 1천487억t·km.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3천228t·km로 상당하다.

역시 식량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총량 5천2억t·km, 1인당 3천955t·km인 반면에 미국은 각각 1천359억t·km, 498t·km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의 국제 농업경쟁력은 뛰어나다.

개발시대에 꼭 국내산 먹을거리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토불이(身土不二)가 건강과 우리 농어촌뿐만 아니라 식품첨가제는 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여기에도 수입식품이 지구온난화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경 처 부 2200-634 사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회 생 활 부 2200-661 여 령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79 사 진 부 2200-612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이 케 영 국 2200-521 경 처 부 2200-634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 회 생 활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